



Music: 초연 mr

[강추강추] 치매 원인 비타민 D 결핍 직접 영향

비타민 D의 결핍이
치매 발생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정밀 건강센터
(Center for Precision Health)
소장

엘레나 히포넨 교수
연구팀이 29만 4천 514명의
영국 바이오뱅크 (UK Biobank)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멘델 무작위 분석법
(Mendelian randomization)
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호주의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
(The Australian) 인터넷판이
15 일 보도했다.

멘델 무작위 분석법이란
특정 질병의 환경적
위험인자들과

그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 변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연구 방법이다.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25nmol/L 인 사람은
50nmol/L 인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비타민 D 혈중 수치를
25nmol/L 에서 50 nmol/L 로
올리면 치매 환자의 17%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타민 D 의 혈중 수치는
최소한 50 nmol/L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호주 성인의 31%가
이에 미달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비타민 D 결핍과
치매 사이에는
유전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뇌의 용적이 작고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높았다.

비타민 D가 뇌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첫째,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hypothalamus)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다.

이는 비타민 D가
신경 스테로이드
(neurosteroid)의 기능을
통해 신경세포 (neuron)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한다는 시사일 수
있다.

?둘째,

비타민 D는 혈전의 감소,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조절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비타민 D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공통으로
관측되는 염증 촉진
단백질 사이토카인과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쇠퇴로 인한 지나친
염증성 신경혈관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뇌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임상 영양학 저널'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됐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한국경제 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